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월 10일 14:00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

제 목 : 「한국은행 경제연구원 –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 원 공동 심포지엄」 개최

-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2월 10일(화) “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: 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”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
 -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산업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
 - ① 장기요양·돌봄·가정의 경제학
 - ②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방안
 - ③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
 - ④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동화 확산에 따른 AI 기술 수요 및 노동시장 숙련 구조 변화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룰 예정
- 개막식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으며, 이후 발표 및 토론 세션이 진행
 - 발표자료의 주요 내용은 <붙임> 참조

※ 축사는 별도 배포할 예정

문의처: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최이슬 과장, 이동원 실장

Tel: (02) 759-5435, 5404 Fax: (02) 759-5420 E-mail : consec@bok.or.kr

공보관 : Tel (02) 759-4015, 4199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BANK OF KOREA

< 차 례 >

1. 발표 요약 3

<발표1> “노년의 삶을 디자인하다: 장기요양, 돌봄, 그리고 가정의 경제학”
김현철, 연세대학교 교수 겸 인구와 인재 연구원 원장

<발표2> “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”
장시령,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

<발표3> “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: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”
성 원,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

<발표4> “초고령사회와 자동화의 가속화: AI 기술 수요와 노동시장 숙련 구조의 변화”
이종관, 연세대학교 교수 겸 인구와 인재 연구원 부원장

2. 심포지엄 프로그램 5

1. 발표 요약

[발표 1]

노년의 삶을 디자인하다: 장기요양, 돌봄, 그리고 가정의 경제학
▶ 김현철 (연세대 의과대학 교수, 인구와 인재 연구원 원장)

- ◆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가고 가족이 돌봄 부담을 지속 가능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, 돌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‘살던 곳에서 늙을 수 있는’ 환경을 조성하고,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인력과 AI·로봇 기술로 보완할 필요
- (장소) 노인의 삶의 질과 가족 부양 부담 간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, 분절된 돌봄 체계와 전문 인력 부족을 극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
- (사람) 황혼 육아와 ‘노노(老老) 부양’ 확산으로 노인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며,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가 우려
- (죽음) 연명의료 거부 의향과 실제 이행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, 치료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호스피스 공급과 수가 체계의 전환이 필요
- (기술) 요양보호사 공급난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수용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로봇과 AI 기술 투자를 확대할 필요

[발표 2]

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

▶ 장시령 (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)

- ◆ 노인요양시설·화장시설 등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공급 확충을 위해, 공공의 체계적 관리 하에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
- (현황)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,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권에서는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 간 수요·공급 미스매치 발생
- (문제점) 노인요양시설은 지역별 부동산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로, 화장시설은 편익은 공유되고 비용은 설치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에 따른 님비 현상으로 공급 제약이 지속
- (해결 방안) 인센티브 불일치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, 노인요양시설은 귀속임대료의 이용자 부담 비급여화, 화장시설은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설치를 제안

[발표 3]

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: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
구축을 중심으로

▶ 성 원 (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)

- ◆ 신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, AI 시대 핵심 자원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'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' 구축을 제안
 - (현황)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은 연평균 5% 성장이 전망되는 신성장 동력이지만, 우리나라는 원천기술 부족으로 글로벌 선도국 추격에 한계
 - (기회) AI가 R&D 기간 단축과 신시장 창출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, 우수한 바이오 데이터 수집·연계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R&D 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확보
 - (한계) 데이터 활용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정보주체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반면, 편익은 기업·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인센티브 불일치로 활용이 저조
 - (해결 방안)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,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유통을 지원하는 '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'를 구축

[발표 4]

초고령사회와 자동화의 가속화: AI 기술 수요와 노동시장 숙련
구조의 변화

▶ 이종관 (연세대 경제학부 교수, 인구와 인재 연구원 부원장)

- ◆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기업의 자동화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, 이는 전체 고용 감소보다는 고숙련 중심의 인력 수요 전환을 초래
 - (실증분석) 미국 구인공고 데이터 분석 결과, 고령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AI 등 인지적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, 고숙련자 중심의 임금 상승으로 청년층 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
 - (시사점) 자동화로 인한 청년층의 초기 경력 기회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AI 실무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,
로봇 도입 등에서 뒤처진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기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

2. 심포지엄 프로그램

- 주제: 『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: 필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』
- 주최: 한국은행 경제연구원, 연세대학교 「인구와 인재 연구원」
- 일시: 2026년 2월 10일(화) 14:00 - 17:10
- 장소: 한국은행 별관 2층 컨퍼런스홀

[개회식] 사회: 최이슬 (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)

14:00~ **[축사]** 이창용 (한국은행 총재)

14:10 기념 촬영

[제1세션] 초고령사회의 필수 인프라 확충

좌장: 이재원 (한국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연구원장)

14:10~ **[발표 1]** 노년의 삶을 디자인하다: 장기요양, 돌봄, 그리고 가정의 경제학
14:40 ▶ 김현철 (연세대 의과대학 교수, 인구와 인재 연구원 원장)

14:40~ **[발표 2]**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
15:10 ▶ 장시령 (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)

15:10~ **[토론 1]** 박성철 (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)

15:30 **[토론 2]** 윤참나 (서울대 경제학부 교수)

15:30~ 휴식 및 다과 (Coffee Break)
15:50

[제2세션] 초고령사회와 기술 진보, 미래 신산업 육성

좌장: 권순만 (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)

15:50~ **[발표 3]**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: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
16:20 구축을 중심으로
▶ 성 원 (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)

16:20~ **[발표 4]** 초고령사회와 자동화의 가속화: AI 기술 수요와 노동시장
16:50 숙련 구조의 변화
▶ 이종관 (연세대 경제학부 교수, 인구와 인재 연구원 부원장)

16:50~ **[토론 3]** 최자원 (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)

17:10 **[토론 4]** 최재성 (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)